

K-패션 활성화를 위한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발전 방향성 제고

김희선[†] · 안영실

한양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 한양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the development method of the domestic sewing industry for the re-vitalization of K-fashion

Hee-Sun Kim[†], Young-Sill Ahn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yang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yang Women's University

(2019. 11. 8 접수; 2019. 11. 28 수정; 2019. 12. 1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domestic fashion sewing industry and suggest solutions for re-development. The research methods are a content analysis of literature, including articles and reports, and interviewing practitioners who are in charge of the fashion industry.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fashion sewing industry are as follows. 1. Weakness in price competitiveness and a lack of work. 2. Aging of workers and difficulty securing new workers. 3. The age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the lack of manpower required for mass production. 4. Unrealistically low cost of labor due to over-competition considering the lack of work. 5. The prevalence of illegal label grinding.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listed above are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a win-win effort between fashion brands and sewing companies. 2. Allow systematic education, support, and development of a meister system for fostering sewing manpower. 3. Undertake efforts to improve the sewing work environment. 4. Establishment of the system for realizing the actual cost of labor. 5. Establishment of a quota system to secure domestic sewing production. 6. Construction of Smart DB to connect work orders. 7. Construction of a smart factory using technology such as automated systems of production suitable for the 4th Industrial Age. 8. Enforcement of specialized strategies to encourage fashion sewing companies, not only Seoul but also in other urban areas.

Key Words: domestic fashion sewing industry(국내패션봉제산업), quota system(쿼터제도), smart factory(스마트팩토리), smart DB(스마트 DB), meister(마이스터)

I. 서론

최근 정부 지자체와 섬유패션 관련 협회 등을 중심으로 K-디자이너의 창의적 디자인을 발굴하여 국산 원부자재로 국내 봉제업체에서 제작할

[†]Corresponding author ; Hee-Sun Kim
Tel. +82-2-2290-2140
E-mail : sunkim211@hanmail.net

수 있도록 독려하고, 컬렉션 참여와 국내·외 바이어와의 수주상담 등을 진행하여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고부가가치의 순종 K-패션이 글로벌 패션마켓에서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노력임과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국내 원부자재산업과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원단산업은 과거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였지만, 최근 중국의 도약으로 가격경쟁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원단산업은 디자인능력도 중요하지만 기기와 설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기업이 원단생산을 위한 최신 기기와 설비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발전된 섬유기술의 유입을 위하여 섬유 관련 경력을 갖고 있는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자국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단생산, 염색가공, 원단무역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섬유 전문가의 중국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국내 원단사업에 오히려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패션봉제산업은 인건비와 종사자의 봉제테크닉 등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봉제테크닉이 우수한 인력의 고령화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일찍이 사향세에 놓여 2000년 이후 많은 양의 의류생산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인건비가 비교적 싼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소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김희선, 안영실(2018)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패션브랜드는 빠른 납기를 요구하는 스팟 및 리오더 의류 생산 시, 트렌디하고 복잡한 디자인과 고품질의 의류와 같이 생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하이퀄리티의 희소성 높은 의류의 소량생산 시에는 ‘국내소싱’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글로벌소싱’은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에는 좋으나 지리적 위치가 먼 경우 배송시간이 길어지고 물류비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자유롭지 않은 언어로의 소통으로 생산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선 기획이 가능한 베이직 한 디자인의 의류를 대량생산 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

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글로벌 소싱도 종사자의 기술력, 먼 거리로 인한 납기일의 지연, 관리의 어려움, 국가간의 정치, 법률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고, 빠르게 변하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독창적인 디자인, 다품종 소량 생산이 선호되는 현대패션에서는 선 기획보다는 소비자 반응에 기반 한 스팟 생산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QR체계를 이루기 쉬운 국내생산을 필요로 하는 패션업체도 많아,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봉제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의류생산기반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 패션봉제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패션봉제산업이란 ‘의류봉제업체’, ‘샘플패턴업체’, ‘재단전문업체’, ‘마무리/완성업체’ 등 의류 상품 생산과 관련 있는 업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류봉제업체’란 직물, 모피 등 원단의 재단, 봉합, 가공을 통해 각종 의류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원단의 재단, 봉합, 가공 등 의류완제품 봉제 모든 공정을 직접 혹은 일부 위탁을 통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부임가공 업체’와 단추달기, 소매달기, 칼라달기 등 의류완제품 봉제 일부 공정만을 하청 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가공비를 받는 업체인 ‘부분임가공업체’를 포함한다. ‘샘플패턴업체’란 의류제품 제작을 위해 앞판, 뒤판, 소매, 칼라 등 의류의 부분별 옷본을 제작하거나(패턴업체), 패턴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샘플업체)를 말한다. ‘재단전문업체’란 패턴에 따라 재단기를 이용하여 원단을 재단, 납품하고 그 대가로 재단 가공비를 받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업체이다. ‘마무리/완성업체’란 의류완제품 판매를 위해 실밥 등을 짧게 자르거나(마도메), 다림질(시아게), 텍작업, 포장작업 등의 공정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윤을 취득함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다(한국의류산업협회, 2017).

II.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표 1〉 인터뷰업체 특성

브랜드분류	업체명	특성	본사 위치
디자이너브랜드	S.	여성 의류 생산	관악구
디자이너브랜드	B.	여성 의류 생산	성동구
신진디자이너브랜드	P.	여성 의류 생산	마포구
신진디자이너브랜드	J.	여성 의류 생산	강남구
내셔널패션브랜드	I.	여성, 남성, 캐주얼 의류 생산	강남구
내셔널패션브랜드	L.	여성, 남성, 캐주얼 의류 생산	강남구
프로모션업체	H.	국내 주요 여성, 캐주얼 의류 생산	구로구
인터넷쇼핑몰 브랜드	D.	여성 의류생산	성동구

〈표 2〉 국내 패션봉제산업체의 지역적 분포율

지역	업체수(개)	비율(%)
서울	3,527	65.2
경기권	550	10.2
충청권	159	2.9
호남권	282	5.2
대경권	375	6.9
동남권	517	9.6
전체	5,410	100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섬유패션 관련 협회 전문자료, 섬유패션 신문과 잡지 자료 등을 분석하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과 패션업계 관련 실무자와의 인터뷰법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한 실무자는 국내 디자이너브랜드 2업체, 신진디자이너브랜드 2업체, 내셔널브랜드 2업체 의류프로모션 1업체, 패션인터넷쇼핑몰 1업체 관련 실무자 총 8명이었다(표 1).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패션봉제산업 현황 분석
2.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문제점 고찰
3.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제안

Ⅲ. 연구결과

1. 국내 패션봉제산업 현황분석

1)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지역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부 지원으로 한국 의류산업협회(2017)가 조사한 '2017년 봉제업체 실태조사' 자료에 준하여 국내 패션봉제관련 산업체의 지역적 분포와 업체별 비율 등을 살펴보았다. '2017년 봉제업체 실태조사'는 통계청 '2015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에 기록된 의류봉제업, 프로모션업, 샘플패턴업, 재단전문업, 마무리/완성업체 등 8,760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중 조사에 응한 5,410개 업체를 설문조사하여 도출한 자료이다.

(1) 국내 패션봉제산업체의 지역분포 특성

의류봉제업체, 프로모션업체, 샘플패턴업체, 재단전문업체, 마무리/완성업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패션봉제산업체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 65.2%, 경기권 10.2%, 동남권 9.6%, 호남권 5.2%, 대경권(대구, 경북) 6.9%, 충청/강원 2.9%, 등으로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3〉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업태별 비율

업태	업체수 (개)	비율 (%)
의류봉제업체	4,629	90.60
샘플업체	214	4.19
패턴업체	47	0.92
재단전문업체	101	1.98
마무리/완성업체	118	2.31
총	5,109	100



〈그림 1〉 국내 패션봉제산업체의 업태별 지역분포율(출처: 한국의류산업협회, 2017)

(2) 업태별 비율과 지역분포 특성

업태비율은 의류봉제업체 90.60%, 샘플업체 4.19%, 마무리/완성업체 2.31%, 재단업체 1.98%, 패턴업체 0.92%로 의류봉제업체의 비중이 압도적이다(표 3).

업태별 지역분포는 의류봉제업체의 경우 서울 62.5%, 동남권 10.7%, 경기권 10.5%, 대경권 7.6%, 호남권 5.4%, 충청권 3.3% 순이었다. 샘플업체는 서울 93.0%, 경기권 4.2%, 동남권 1.9%, 대경권 0.5%, 호남권 0.5%였으며, 패턴업체는 서울 95.7%, 경기권 4.3%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3) 국내 의류봉제업체에서 생산되는 주요복종과 지역별 생산복종 특성

2017년 자료를 보면 국내 의류봉제업체는 셔츠·스포츠의류를 생산하는 업체 25.5%, 여성정장 생산업체 21.9%, 유니폼업체 12.6%, 편조의를복업체 11.5%, 남성정장업체 8.7%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의류봉제업체는 셔츠·스포츠의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여성정장, 유니폼, 편조의복, 남성정장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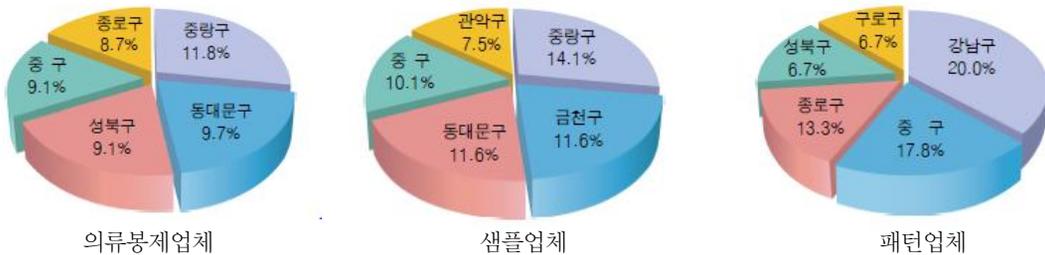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 셔츠·스포츠의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셔츠·스포츠의류에는 다이마루 티셔츠 아이템이 포함되는데 다이마루 티셔츠는 국내 수요량이 많으며, 생산공정이 짧고 날씨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상품이 요구되며 빨리 소진되어 스팟 생산의 특성이 있어 국내 생산이 선호 된다고 하였다.

복종별로 주요 생산지역을 살펴보면 셔츠·스포츠의류는 서울이 80.4%, 고가 의류인 모피제품은 서울에 77.9%를 포함해 수도권에 97.0%가 밀집되어 있으며, 편조의복은 서울·경기지역에 88.8%로 서울과 수도권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아복은 서울 67.0%와 호남권 15.9%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었으며, 내의류는 서울 50.6%와 호남권 18.5%, 남성정장은 서울이 43.1%로 가장 높은 가운데 충청권 등 전국에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지역별 봉제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복종을 정리해보면 서울은 셔츠·스포츠의류와 여성정장업체를 생산하는 업체 가장 많았으며, 경기권은 편조의복, 충청권은 남성정장, 호남권은 여성정장, 대경권은 액세서리상품, 동남권은 유니폼을 생산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지역별로 주로 취급하는 복종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국내 패션봉제산업체의 생산 복종별 업체 비율

지역	생산 복종별 업체 비율 특성
서울	셔츠·스포츠의류 생산업체 31.4%, 여성정장업체 24.5%, 유니폼업체 11.6%, 편조의복업체 10.8%, 남성정장업체 5.7% 순.
경기권	편조의복업체 26.2%, 액세서리업체 16.5%, 셔츠·스포츠의류업체 16.4%, 유니폼업체 10.5%, 남성정장업체 10.0% 순.
충청권	남성정장업체 22.0%, 유니폼업체 21.4%, 여성정장업체 18.9% 순
호남권	여성정장업체 28.7%, 남성정장업체 20.2%, 유니폼업체 16.0%, 내의업체 10.6% 순
대경권	액세서리업체 18.1%, 여성정장업체 17.6%, 셔츠·스포츠의류업체 16.0%, 유니폼업체 14.4% 순
동남권	유니폼업체 21.1%, 셔츠·스포츠의류업체 18.0%, 여성정장업체 17.8%, 액세서리업체 16.2% 순



〈그림 2〉 의류봉제업체, 샘플업체, 패턴업체의 서울지역 분포 비율(출처: 한국의류산업협회, 2017)

〈표 4〉는 지역별 의류봉제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복종 비율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이다.

2)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패션봉제산업의 특성

(1) 서울 패션봉제산업의 업체별 지역분포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패션봉제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의류봉제업체는 중량구 11.8%, 동대문구 9.7%, 성북구 9.1%, 중구 9.1%, 종로구 8.6% 등 동대문시장에 인접한 5개구에 48.3%가 밀집되어 있었다.

샘플업체는 중량구 14.1%, 동대문구 11.6%, 금천구에 11.6% 분포되어 있고, 패턴업체는 강남구에 20.0%로 가장 많은 업체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2〉는 업체별 서울지역의 분포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 서울지역의 복종별 지역분포 특성

서울에 소재한 의류봉제업체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복종은 셔츠·스포츠의류로 이를 생산하는 업체는 중량구 19.4%, 성북구에 19.1%로

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여성정장은 종로구에 18.4%, 중구 15.4%, 동대문구 11.9%, 관악구에 7.4% 순이었다. 근무복, 작업복을 포함하는 유니폼은 동대문구 14.2%, 중구 11.8%, 종로구에 8.9% 분포되어 있었으며, 편조의복은 도봉구에 16.4%, 동대문구 16.1%, 중량구 12.0%, 관악구 10.0%가 분포되어 있었다. 남성정장은 중구 24.3%, 종로구 14.9%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서울의 경우 구별로 취급하는 복종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는 구별 주요 취급 복종 및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3) 서울, 수도권 봉제업체의 위치에 따른 규모와 생산상품 특성

패션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의류봉제업체를 종사자의 규모와 납품 특성등을 기준으로 1,2,3군 등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1군은 주로 신림동(관악구), 구로동(구로구), 독산동(금천구) 등에 위치하고 있는 봉제업체로 종업원 수는 10인 내외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엘에

〈표 5〉 서울시 구별 주요 취급 복종 및 비율

	셔츠·스포츠	여성정장	유니폼	편의의복	남성정장
중랑구	19.4%			12.0%	
성북구	19.1%				
종로구		18.4%	8.9%		14.9%
중구		15.4%	11.8%		24.3%
동대문구		11.9%	14.2%	16.1%	
관악구		7.4%		10.0%	
도봉구				16.4%	

〈표 6〉 서울, 수도권 봉제업체의 위치에 따른 납품 특성에 따른 분류

	1군	2군	3군
위치	구로동(구로구), 신림동(관악구) 독산동(금천구), 사당동(동작구) 인천, 부평, 부천 등 서남부지역	청파동(용산구), 만리동(중구) 등 서북부지역	중랑구, 창신동(종로구), 신당동(중구), 왕십리(성동구) 등 동대문시장 근접지역
종업원수에 의한 규모	10인 내외	5~10인	5인 이하
납품형태 (임가공대상업체)	대기업패션브랜드	중견온라인쇼핑몰, 신진디자이너브랜드	동대문시장 제품
공임수준	비교적 적절한 공임	거래브랜드에 따라 차등화	1,2군의 절반 수준

프(LF), 제일모직, 한섬과 같은 대형 패션브랜드에 주로 의류를 납품하고 있어 퀄리티 있는 의류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 1군 공장은 대기업 브랜드로부터 비·성수기에 구분 없이 안정적인 일감을 받아 비교적 높은 공임을 받고 있으며, 대기업이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일감과 적절한 공임을 보장함으로써 생산 현장은 기술개발에 힘쓰는 한편 높은 퀄리티의 품질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형태는 봉제업체와 패션기업의 전형적인 상생모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1군으로 분류되는 봉제공장이 사당동, 인천, 부평, 부천으로 이전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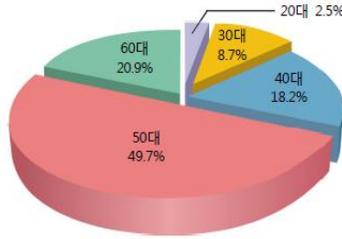
2군은 청파동(용산구), 만리동(중구) 등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봉제업체로, 종업원 수는 5~10인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온라인쇼핑몰, 신진디자이너업체를 대상으로 의류를 생산해주고 있는데, 공임은 거래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온라인쇼핑몰브랜드는 1군과 비교해 공임이 낮지만 물량은 많은 편이고 신진디자이너브랜드 납품 의류는 브랜드 특성상 생산수량은 적으나 디자인 디테일이 많아 1군보다 높은 공임을 받고 있다.

3군은 동대문시장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위치는 동대문시장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주로 창신동(종로구), 신당동(중구), 왕십리(성동구) 등과 대표적인 봉제업체 밀집지역인 중랑구에 있는 봉제업체가 이에 속한다. 3군에 속한 봉제업체는 5인 이하 가내수공업형태가 가장 많아 일감이 많을 시에는 추가인원을 객공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영세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영위하여 정부 또는 각 지자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협회 등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을 통한 양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공임은 1, 2군의 절반 수준이며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해 안정적인 공장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섬유신문, 2015)(표 6).

2.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문제점 고찰

1) 가격경쟁력 약화 및 일감부족

국내 인건비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북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원부자재의 가격, 임가공비용 등 역시 높아져



〈그림 3〉 패션봉제산업체 전체 종사자 연령별 인력 비중
(출처: 한국의류산업협회, 2017)

〈표 7〉 직종별 연령 유입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봉제사	없음	2.5%	14.6%	61.7%	20.5%
링킹사	1.6%	4.4%	13.7%	48.4%	31.9%
패턴사	6.5%	18.5%	22.1%	38.8%	14.1%
샘플사	없음	14.6%	32.1%	40.3%	12.2%
재단사	없음	5.96%	24.0%	55.3%	13.4%

글로벌 소싱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한 것이 국내 패션봉제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생산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무분별한 해외 생산을 야기하여, 국내 업체가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결국 일감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건비 상승에 의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같은 문제는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나, 국내 패션봉제산업이 겪고 있는 일감부족의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 봉제인력의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단절

2017 봉제업체실태조사에 의하면 패션봉제산업체 종사자(전체 28,166명) 중 50대 이상 비중이 70.6%인 반면, 30대 8.7%, 20대는 2.5%에 불과하여 봉제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그림 3).

패션봉제산업과 관련된 직종은 봉제사(미싱사), 링킹사(사시사), 패턴사, 샘플사, 재단사 기타 등이 있는데 직종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봉제사는 60대 이상 20.5%, 50대 61.7%, 40대 14.6%, 30

대 2.5%, 20대 이하는 없었으며, 링킹(사시)기계를 사용하여 스웨터, 카디건 등 편물제품의 몸판이나 소매의 코와 코를 연결하여 이어주는 링킹사는 60대 이상 31.9%, 50대, 48.4%, 40대 13.7%, 30대, 4.4%, 20대는 1.6%였다.

봉제사와 링킹사는 50대 이상 종사자 비중이 각각 82.2%, 80.3%로 높은 반면, 30대 이하 종사자 비중은 각각 3.2%, 6.0%에 불과하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턴사의 경우는 20대 6.5%, 30대 18.5%, 40대 22.1%, 50대 38.8%, 60대 이상이 14.1%로 다른 직종에 비해 젊은 층이 유입이 되고 있는 직종으로 분석되었다.

샘플사와 재단사의 경우에도 20대의 유입은 없었으나 40대의 경우 각각 32.1%, 24.0%, 50대 40.3%, 55.3%로 40대와 50대의 비중이 높았다. 〈표 7〉은 직종별 연령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또한 국내 패션봉제산업체의 공장규모는 서울 지역의 경우 30~50평 미만의 공장이 전체의 31.3%로 가장 많았고, 20~30평은 20.8%였으며 특히, 서울은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100평이 넘는 큰 공장이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곽지역인 구로구(평균 137.5평), 금천구

(63.4평), 양천구(61.8평)는 낮은 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장규모가 큰 편이었으나, 용산구와 중구는 각각 평균 22.2평, 29.5평으로 서울지역에서 영세 소규모 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특히, 봉제공장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종로구는 10평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16.6%에 달하고, 10~20평 26.0%, 20~30평 28.0% 등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층에 공장이 있는 비중은 전체의 2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료는 국내 패션봉제산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위의 자료를 통하여 패션봉제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이 고령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의류 봉제업체의 봉제사와 링킹사에 젊은 인력 유입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봉제 업무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인력의 고령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짐으로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대량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노후 및 인력규모 부족

국내 의류생산설비는 10년 전부터 중국 베트남 등지로 이전하여 국내 봉제업체 설비는 10년 전 수준으로 머물러있어 대량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설비가 노후 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7년 봉제업체실태조사 자료로 부터 국내 패션봉제산업체의 생산설비 노후도를 살펴보면 6~10년 된 설비가 전체의 3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1~15년 된 설비가 28.6%, 16년 이상 된 노후설비도 21.5%에 달하는 반면, 5년 이하의 최신설비는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의 수에 따라 업체분류 시 5인 미만일 때 '가족생계형업체', 5인~9인 이하일 때 '가내수공형', 10인이상~19인 이하일 때 영세소기업, 20인이상~49인 이하일 때 중소기업, 50인 이상~299인 이하일 때 '중견업체'라고 구분하는데, 국내 패션봉제산업체는 종사자 20인 미만의 영세

업체 비중은 95.6%나 되었으며,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가족생계형 업체 비중이 72.1%에 달하고, 5~9인 사이의 가내 수공형 업체 비중도 15.4%나 되었다. 반면, 종사자 50인 이상의 중견업체 비중은 0.8%에 불과하였으며 종사자 20~49인 이하의 중소기업 비중은 3.6%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국내 패션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설비의 교체는 물론이고 업체의 축소된 인력규모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4) 제도적 개선사항이 필요한 문제점

자료분석과 인터뷰 결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았다.

(1) 일감부족에 의한 비현실적 생산공임비 책정

글로벌소싱의 증가에 따라 국내 봉제업체가 수주하는 일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자 국내 패션봉제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어 공임비가 비현실적인 비용으로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패션 브랜드가 임가공업체 또는 완사입업체에 요구하는 가공임 비용은 십수년 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결국은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할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불법 라벨갈이의 성행

값싼 수입산 의류에 대한 라벨갈이는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 다른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벨갈이란 값싼 수입 의류를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2017년 국내 봉제업체 주요동향 자료를 보면 값싼 중국산 의류를 수입한 후, 부착된 라벨 메이드인차이나를 메이드인코리아로 둔갑시켜 동대문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존 가격의 10배 이상 부풀려 판매하는 일명 '불법 라벨갈

이' 즉 의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는 국내 봉제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심요소로 보고 의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업계차원에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7). 이처럼 라벨같이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정기창, 2018).

(3) 객공 형태의 직원채용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한 패션봉제산업체의 경우 직원을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객공 형태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열악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봉제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발전 방향성 고찰

섬유패션산업 전문가의 섬유패션 전문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기고문과 인터뷰 결과, 본 연구의 봉제산업 현황과 문제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성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패션브랜드와 봉제업체의 상생노력

(주) 한섬은 2010년 구로구 가산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우수 협력 봉제업체를 입주시켜 보증금과 월세의 50%를 지원하고, 봉제 오더를 우선적으로 할당해 발주하여 협력업체와 상호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같은 상생협력 시스템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불황이던 2014년에도 전년 대비 11.5%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8.7%를 달성하여,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월등히 나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기비, 키이스, 레니본 등 9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주)아이디룩은 봉제공장과 전속 하청계약을 맺고 10년 이상 거래하여 협력공장들에 1년 내 일감을 끊이지 않게 대주는 대신 협력 공장들은 의류 품질 안정과 봉제 기술 개발에 힘쓰는 것으로 보답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봉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패션브랜드업체와 국내 봉제업체 간 일감연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오더 플랫폼' 개발과 브랜드와 봉제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섬유신문, 2015).

현재 패션브랜드와 봉제업체가 상생 협력함으로써 고품질 의류생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람직한 노력은 일부 대기업 패션브랜드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브랜드, 신진디자이너브랜드, 동대문 패션시장 제품 생산에도 봉제업체와의 체계화된 상생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 국내 봉제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봉제인력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마이스터제도 실시

의류봉제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서울 중랑구에서는 자치구 중점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패션봉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내 봉제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한국패션산업협회는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하이엔드 의류제조기술자 교육'을 중장기적으로 계획,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국내 의류제조산업의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정우영, 2019).

(사)한국봉제패션아카데미 역시 봉제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하고 정부지원을 받아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력이 있는 젊은 봉제인력 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국내 패션, 봉제 관련 협회와 지자체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봉제인력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봉제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정기창, 2017).

일본 역시 임금인상과 봉제인력의 감소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봉제기술

과 공장설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도를 갖춘 마이스터 학교를 설립하여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었다(임경량, 2017).

위와 같은 사례 등을 통하여, 주부 등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체계적인 봉제교육을 지원하여 미취업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봉제업체 입장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탁월한 봉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에게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마이스터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브랜드가 고가의 고부가가치 패션상품 제조 시 채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마이스터 제도’의 실시 역시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제교육 노력과 마이스터 제도의 실시는 국산 패션상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고숙련 봉제인력의 경우 고임금을 받을 수 있어 젊은 인력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봉제작업 환경개선 노력

한국섬유신문기사에 의하면 서울시 중구는 카페처럼 쾌적하고 깨끗한 봉제혁신평장을 키워 국내 봉제산업 부활에 나선다고 보도하였다. 혁신공장 1곳, 환경개선 10곳, 협업모델 4곳을 선정 총 2억8000만원을 투입, 카페형 봉제공장 선도모델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젊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여 봉제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정기창, 2018).

이와 같이 봉제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은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범정부적 제도확립

(1) 국내 봉제 생산량 확보를 위한 쿼터제 확립

국내 유명 브랜드의 코트 봉제를 하고 있는 남성코트 전문 봉제기업인 ‘원산’은 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과 오더량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가 쿼터제를 도입하여 패션기업들이 생산 물량의 10~20%정도를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 하도록 제

도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정정숙, 2019).

미국의 경우는 이미 20년 전부터 미국 내 의류 봉제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29%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자국내에 생산 캐파를 갖추지 못하면 해외 아웃소싱 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그만큼 생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도화하고 있다고 하였다(김대영, 강다영, 2017).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국내생산기반이 유지되고 도약할 수 있으려면, 국내 생산물량을 제도적으로 일정량 확보할 수 있는 쿼터제와 같은 범정부적 제도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임가공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확립

국내 생산량을 확보 할 수 있는 쿼터제가 확립되면 일감부족으로 인한 과다경쟁이 초래한 비현실적 임가공비 책정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인 임가공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종 및 유형별 임가공비 현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제시한 복종별, 디자인유형별 임가공비 ‘표준계산법’이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병오, 2018). 이에 정부 및 지자체, 업체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라벨같이 규제를 위한 제도 확립

국내 봉제업체의 일감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라벨같이 근절을 위하여 봉제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가칭 ‘라벨같이 철폐를 위한 의류봉제인 운동본부’ 등을 출범시켜 업계 차원에서 공동대응 하고 있다(정기창, 2018).

이처럼 값싼 수입의류를 국산제품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불법 라벨같이’ 제품에 대한 업계의 강력한 대응은 물론이고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지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제도에 따라 규제를 강력히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영세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대보험 제도화

정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는 영세봉제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업체 간 오더수주 연결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업자등록을 독려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객공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봉제업체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가입시켰을 때, 정부 각 부처들이 최저임금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병오, 2018).

이와 같은 제도적 노력은 영세봉제업체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봉제 인력의 유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스마트 DB 구축에 의한 일감 연결의 제도화

한국의류산업협회(현 한국패션산업 협회)는 산업부, 중기부, 서울시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2005년도부터 ‘봉제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봉제업체 실태조사, 봉제업체 및 구인구직 검색시스템 구축, 국내 우수 봉제업체 발굴 및 홍보 등 국내 봉제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봉제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지역별/품목별 DB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 공장검색을 희망하는 업체 및 개인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봉제업체 연감’ 책자로도 제공해 업체 간 오더수주 연결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우수봉제업체들을 발굴해 오더연결 및 업체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조수연, 2013).

봉제업종합지원센터의 ‘전국봉제업체 실태조사’는 전화인터뷰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업체 스스로 자사의 정보를 업로드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수주 할 수 있으며, 구인 구직 역시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봉제생산 자동화시스템 스마트팩토리 구축

국내 대표적인 벤더업체인 태평양물산은 자체 개발

한 스마트팩토리시스템 QME(Qualified Manufacturing Engine)를 베트남 공장에 도입한 결과 간접인력이 줄고 12만5천 달러 절감 효과를 보여,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 15개 해외 생산법인 제조공장 모두에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태평양 물산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QME는 창고에서 원단이 출고되는 것부터 봉제가 끝나고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모니터로 현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생산라인에는 작업물을 봉제공정에 따라 전달하는 ‘행거 무빙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완제품 생산량과 검수 결과까지 바로 공유되기 때문에 생산현황을 빠르게 파악 할 수 있다. 태평양 물산은 이처럼 ‘OEM 수출 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을 위해 해외 공장의 공정 자동화뿐만 아니라 본사 내부에서도 실시간 생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임경량, 2018).

여성의류 전문업체인 ‘(주)에스와이제이(대표: 김소영)’는 미얀마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등 완제품 소싱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 로봇팔, 자동미싱봉제장치 등을 통한 자동화 생산기법으로 인건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월간봉제기술, 2017).

어패럴 뉴스에 의하면 정부가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2020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하여 섬유·패션 제조업종 전용 스마트공장을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노동집약산업을 인력 수요를 크게 줄인 첨단 산업으로 전환해 중국과 동남아등 저임금 국가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들의 의류 생산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국내 섬유·패션 제조 기업이 증가하면 다시 고용도 늘 것이라는 견해다(임경량, 2018).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에 대하여 실무자에게 인터뷰한 결과 부정과 긍정의 의견이 혼재하였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막대한 초기 자본을 들여 국내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는 패션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디자인이 다양하고 자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 패션상품을 자동화 기계로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긍정적인 견해로는 초기 자본은 많이 들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내 봉제공장이 스마트팩토리로 구축되면, 필요 봉제인력이 줄고 생산 속도 및 물량은 높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생산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 봉제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 발전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한다면 선진국형 부가가치가 높은 다품종 소량 생산과 고품질의 패션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4차 산업 시대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봉제 공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며, 정부 및 패션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지역별 권역별 특화노력

디인사이트의 기사에 의하면 서울 중구 신당동의 의류·봉제산업 밀집 지역이 '2017 특화상권 활성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중구에는 1,300여개 봉제업체에서 4,6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4인 이하 영세업체가 많고 종사인력의 평균연령이 높아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어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돕고 있으며, 봉제인 네트워크 구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샘플·패턴업체가 110여개로 서울에서 가장 많아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부가가치를 내는 샘플·패턴 업종의 특화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 하였다(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2017).

본연구자는 앞서 국내봉제산업 현황분석에서 국내 패션봉제산업은 서울과 경기권에 밀집되어 있으나,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체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충청권은 남성정장, 호남권은 여성정장, 대경권은 액세서리상품, 동남권은 유니폼을 생산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힌바 있다. 서울지역도 권역별로 주로 취급하는 복종이 다르며 거래업체와 규모 등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패션봉제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특화사업 실시'가 필요하며 서울, 경기권에서도 권역별, 구별 지역 특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업종의 특화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봉제산업의 현황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패션봉제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섬유패션 관련 협회 전문가, 섬유패션 신문과 잡지 자료 등을 분석하고 패션업계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내 봉제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무분별한 글로벌 소싱으로 인해 국내 봉제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일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패션브랜드와 봉제업체가 서로 협약을 맺어 일감을 연결하고 확보해주는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내 생산물량이 일정량 확보될 수 있는 쿼터제와 같은 범정부적 제도 확립과 정부와 기관의 섬유패션스마트 DB 구축 노력에 의한 일감연결의 제도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봉제인력의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단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주부 등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체계적인 봉제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봉제업체의 신규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탁월한 봉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에게는 마이스터 자격을 부여하여 고부가가치 패션상품 제작 시 채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 고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봉제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젊은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밖에도 봉제업체의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방안과 4대보험가입과 최저임금 보장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되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국내 의류생산 설비의 해외 이전으로 대

량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및 인력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정부, 기관, 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4차산업시대에 적합한 봉제생산자동화시스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장 자동화로 부족한 봉제인력 수급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생산속도 및 물량은 높임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춤과 동시에 다품종 소량생산 및 선진국형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K-패션 의류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일감부족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임가공비의 비현실적 책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임가공비를 고려한 복종별, 디자인유형별 임가공비 '표준계산법'의 제도화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불법 라벨갈이의 성행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불법 라벨갈이 제품에 대한 업계의 강력한 대응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제도의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패션봉제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별 권역별 특화 노력의 실시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추후 위에서 제시한 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대영, 강다영. (2017. 7. 20). 맞춤형 패션시대... 봉제가 4차산업혁명 최전선.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18. 9. 5, 자료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7/07/488675/>
- 김경환. (2012. 3. 29). 패션-봉제 만나 상생 협력 다졌다. *패션인사이트*. 자료검색일 2018. 9. 20, 자료출처 <http://fi.co.kr/main/view.asp?idx=39007>
- 김진선, 오순. (2009). 국내외류업체의 생산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디자인포럼*, 25, 23-34.
- 김희선, 안영실. (2018). K-패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분석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9(3), 175-192.
- 박종진. (2019. 8. 22). 서울노동청, 서울지역 5대 권역별 산업특화도 발간. *국제뉴스*. 자료 검색일 2019. 9. 5, 자료출처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598>
- 박찬호. (2016). 해외의류생산 품질관리. *패션정보와 기술*, 13, 66-73.
- 봉제산업 부활...패션·봉제 상생 협력에 길 있다. *한국섬유신문*. 자료검색일 2019. 7. 25, 자료출처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94>
- 서민정, 이규혜. (2010). 위탁생산업체의 특성, 위탁업체-도매업체 관계 형성 및 도매업체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8(3), 588-598.
- 서민정, 이지인, 이규혜. (2009). 동대문 패션타운의 도매업체 현황 및 협력업체 선정 기준에 따른 유형화. *복식문화연구*, 17(5), 819-833.
- 서추연. (2008). 한국봉제산업의 해외진출현황. *패션정보와 기술*, 5, 10-15.
- 여성복전문 '에스와이제이', 자동화 생산기법 도입. *월간봉제기술*. 자료검색일 2019.00.00, 자료출처 <http://www.bobbinjournal.com/archives/6933>
- 유민정. (2019. 7. 15). 젊은 봉제 인력 창신동에 모여든다. *어패럴뉴스*. 자료검색 2019. 8. 25, 자료출처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77448
- 이현아, 천종숙. (2007). 국내외류업체의 해외생산 현황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3), 461-471.
- 임경량. (2017. 9. 11). 국내 봉제 산업 뒤안길로 사라지나. *어패럴뉴스*. 자료검색일 2018. 9. 20, 자료출처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67574
- 임경량. (2018. 4. 6). 정부,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만든다. *어패럴뉴스*. 자료검색일 2019. 2. 10, 자료출처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70490
- 임경량. (2018. 7. 10). 태평양물산 전 해외 생산 법인 '스마트 팩토리' 전환. *어패럴뉴스*. 자료검색 2019. 2. 10, 자료출처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cat=CAT900&page=&idx=171871
- 정기창. (2017. 7. 14). 전순옥 이상봉 대담 - 디자인·패턴·봉제 '3위일체' 돼야 섬유패션 강국 도약. *한국섬유신문*. 자료검색 2018. 8. 20, 자료출처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80>
- 정기창. (2018. 1. 19). 2018신년좌담회-韓패션봉제 산업활로는. *한국섬유신문*. 자료검색일 2019. 2.

- 15, 자료출처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77>
- 정기창. (2018. 5. 10). 서울 중구, 봉제혁신평공장 도입으로 부활의 날갯짓. *한국섬유신문*. 자료검색일 2018. 9. 10, 자료출처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084>
- 정우영. (2019. 8. 14). 하이앤드 의류제조 기술자 교육생 모집. *미디어패션쇼*. 자료검색일 2019. 9. 10, 자료출처 http://m.fashow.co.kr/home/fshow/html/mg/bbs/board.php?bo_table=newsissue&wr_id=2009
- 정정숙. (2019. 8. 9). 40년 코트 전문 봉제 외길로 고퀄리티 '평정'. *한국섬유신문*. 자료검색일 2019. 9. 5. 자료출처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936>
- 조수연. (2013. 9. 24). 의산협, 국내 의류패션봉제 지원사업 허브 안착. *패션저널*. 자료검색일 2018. 9. 20, 자료출처 http://www.wtn21.com/print_paper.php?number=2472
-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2017. 11. 27). 중구, 봉제 산업 활성화 시동 걸었다. *디자인사이드*. 자료검색일 2018. 9. 20, 자료출처 <http://www.dinsight.co.kr/main/news/4637>
- 최선윤. (2012). 국내 봉제산업 육성 현황. *패션정보와 기술*, 9, 46-55.
- 패션은 평생을 건 사업, 봉제도 신바람 나아. *월간 봉제기술*. 자료검색일 2019.00.00, 자료출처 <http://www.bobbinjournal.com/archives/7953>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7). *의류·봉제산업동향*. 서울.
- 한국섬유신문. 2015 제2946호. “봉제산업 부활... 패션·봉제 상생 협력에 길 있다”. *한국섬유신문*. 자료검색일 2019. 7. 25. 자료출처 <http://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94>
- 한국의류산업협회(2017). 2017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